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1, Vol. 40, No. 3, 239-268

<http://dx.doi.org/10.22257/kjp.2021.9.40.3.239>

세대 간 폭력의 전이 메카니즘에 대한 고찰;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를 중심으로

구 미 희¹⁾

이 영 순[†]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폭력을 왜 하게 되는지를 세대 간 폭력의 전이 관점에서 살펴보고 전이의 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카니즘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사회학습이론, 애착이론,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신경생리학모델, 행동유전학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 핵심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둘째,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이 학대적인 양육으로 이어지면서 자녀의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어떠한 감정이든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 정서내성범위(Siege, 1999)를 적용하여 부모의 정서조절 시스템이 이 범위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는데 효과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학대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들의 상담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아동학대, 세대 간 폭력의 전이, 정서내성범위, 정서조절 방식, 양육

1) 구미희,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E-mail: ninefish71@naver.com

† 교신저자: 이영순,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E-mail: leeys@jbnu.ac.kr

아동 및 청소년기 동안에 경험하는 폭력, 특히 가정에서 부모 등의 친밀한 사람에 의해 경험되는 폭력은 한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Margolin & Gordis, 2000; Osofsky, 1999), 국가의 의료비용 지출 증가 및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Gilbert et al., 2009). 2018년 아동 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24,604건으로 우리나라 아동인구 1,000명당 2.98명이 부모의 학대에 노출되었고, 이들 중 25명이 학대에 의해 사망하였으며, 학대행위자 중 78.4%는 부모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8).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는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Park & Han, 2020). 부모가 자녀를 왜 학대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MOHW, 2019), 아동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학대적인 양육을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정 중 하나가 “폭력주기(cycle of violence)” 또는 “세대 간 폭력의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이다. 이는 Curtis(1963)의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아마도?(Violence Breeds Violence - Perhaps?)”라는 제목의 간단한 임상보고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는 학대받은 아동이 만약에 살아 있게 된다면 내일의 살인자와 다른 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여성의 양육경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의 70%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거

나 경계선 양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Egeland et al., 1987), 이후로 이 개념은 폭력의 가해자가 폭력적인 가족 배경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례보고서와 경험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Langhinrichsen-Rholing, 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별 학대 및 폭력의 중복 경험을 살핀 연구에서 아동기에 친밀한 사람(부모, 가족)으로부터의 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은 물론 생의 전반에 걸쳐 가해 경험과 연관되며, 특히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는 것은 성인기에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도 가해자가 되는 것을 더 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yu, 2017).

미국에서 실시된 아동학대 실태조사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만 18세 이상 17,000명 중 2/3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을 보고하였으며, 스위스 Völkl-Kernstock, Huemer, Jandl-Jager, Abensberg-Traun, Marecek, Pellegrini, Plattner와 Skala(2016)는 아동정신건강과 외래상담 6~20세 환자의 75%가 아동기 폭력의 경험이 있었고, 영국 Huges, Lowey, Quigg와 Bellis(2016)가 성인 3,8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46.4%가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Kim(2017)이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문항(ACE-IQ)을 활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상자 중 50%가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Ryu(2017)는 아동가족 생애경험 실태조사 결과에서 4,008건의 자료를 분석하고, 그 중 78.9%가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 가족구성원들 간의 폭력 목적도 49.1%인 것으로 나타나, 생애 전반에 걸쳐 상당수의 사람들이 부정적 경험을 하였음

을 알 수 있고, 이를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영향력이 우려가 된다.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신체적으로는 골절, 화상, 두뇌손상, 생식기능 이상, 장기파열부터 심각하게는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리 정서적으로도 자아기능 및 자기개념손상, 감정조절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또래관계 붕괴, 나아가 정신병리와 연관되기도 한다(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6). 또한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공격성과 일탈행동, 학교폭력 등에 영향을 미치며(Baek & Chung, 2020; Park, 2018; Kang, 2018; Byun, 2020),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Oh, 2013; Jung, 2014; Kim, 2015; SunWoo, 2017),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나 자해 경험과 관련이 된다(Park, 2008; Noh & Hong, 201; Kim, 2017; Kang, 2018).

아동학대의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받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면 심리적·신체적·사회적 문제를 갖게 되어,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자녀의 출생에서부터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단절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폭력이 지속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부모라 하더라도 모든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지는 않는다(Capaldi et al., 2003). 배우자나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이 있거나(Egeland et al., 1987; Belsky, 1993), 부모의 아동기 동안 학대적인 관계 외에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관계가

있고, 부모로서의 생애 기간 동안 전문가와 지속적인 치료 관계를 맺는 경우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Egeland et al., 1988). 국내 연구에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가 발생하여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 공격적인 행동(비행, 일탈, 파트너 폭력 등)으로 이어지거나, 학대적인 부모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있지만(Lee & Lee, 2002; Gim & Suk, 2003; Kim et al., 2007; Kang, 2009; Kim et al., 2011; Kim et al., 2013), 실질적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살필 수 있는 연구들은 부족하다. 다만 유사한 분야인 애착이나 양육태도의 세대 간 전이를 검토해 보았을 때, 어머니의 반영기능(Choi, 2015)과 부부 갈등해결방식(Won, 2004), 민감성(Ok & Bang, 2012), 배우자에 대한 낭만애착(Chae, 2017) 등이 불안정 애착으로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며, 반영기능(Park, 2015), 심리적 안녕감(Wi & Han, 2020), 자기성찰지능(Yun, 2019), 양육신념(Choi, 2015; Kim, 2019), 자기 수용(Choi, 2016) 등은 양육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애착과 양육태도와 관련 있는 요인들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이론과 효과가 검증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폭력의 세대 간 전이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도울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아동기의 폭력 경험이 어떻게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을 고찰하고, 둘째, 아동학대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셋째, 학대를 경

협한 부모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

아동기 폭력의 경험이 폭력을 지속시키거나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이 제시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

사회 학습 이론은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된 이론으로, 아이들은 사회적 상호 작용의 맥락에서 모델링 및 강화를 통해 행동을 배우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부분적으로 행동을 배우기도 하는데, 부모와 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모델일 때의 행동이 특히 중요함을 강조한다. 가족 내에서의 물리적 공격은 그러한 행동이 적절하다는 메시지를 제공하여 어린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배우는 강력한 모델이 된다(Bandura, 1973).

White와 Straus(1981)는 신체적 체벌의 경험이 모든 유형의 폭력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토대가 되고, Simons와 Wurtele(2010)은 가혹하지 않더라도 체벌을 경험한 아동은 대인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공격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강압적인 상호 작용은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 일탈, 공격적인 동료들과의 연관, 동료들에 대한 강압적인 상호작용

으로 이끈다고 제안한다. Egeland(1993)는 직접적으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을 목격하는 아동은 대인관계 장면에서 폭력이 적절하다고 배우거나, 그들의 성인기 관계에서 초기 아동기의 폭력 경험을 모방하게 될 것으로 설명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Bowlby(1969)의 애착이론은 학대적인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의 폭력적 행동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모로부터 합리적으로 민감하고 사랑에 찬 지지와 정서적 가용성(emotional availability)을 받은 아이는 적절한 자존감이 발달하고, 필요한 경우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적절한 양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모의 보살핌이 다양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이 부족해지고 부모의 보살핌에 대해 다양한 감정적 반응, 특히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게 된다. 양육자와 함께 한 수많은 경험들은 개인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하게 되고, 이 모델에 의하여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달한 정보를 선택하고 해석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역동적 정신적 표상들이고, 대개 인식하지 못한 채 유지되면서,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타인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안내한다.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요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경험이며, 이는 특정한 외상성 사건보다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Bowlby, 1980).

DeLozier(1982)는 성인 애착 장애가 있는 학

대적인 양육을 보이는 어머니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아동기 애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타자들과의 내적 표상을 발달시키는 것을 실패하였으며, 이는 부족한 양육 행동을 포함한 성인 애착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주 양육자의 학대 또는 방치는 아동의 안정적 애착 형성을 방해하여 아동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적대적인 견해를 발달시키도록 유도하고(Ainsworth, 1989), 학대적인 양육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모호한 상호 작용을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Egeland, 1993), 화를 내거나 순응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화를 내고 처벌적인 어머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rockenberg, 1987). 따라서 애착이론은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 타인, 자기-타인 관계들의 작동 모델이 만들어지고 이는 다음 세대로 전이되며, 학대의 연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사회정보처리 이론은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모호한 상호작용을 적대적인 의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유아기 동안에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사회적 신호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갖게 되는 편향되고 부족한 사회적 정보 처리 패턴의 발달을 가져옴으로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 가능성은 적어지고 만성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Dodge et al., 1990).

Frodi와 Lamb(1980)는 학대적인 부모들에게 울고 있는 영아들의 영상을 관찰하게 하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을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 정보 처리 특성을 조사하였다. 학대적인 부모는 영아들이 울고 있는 영상을 보았을 때 이틀 더 성가시게 느꼈으며, 덜 공감적인 표현을 하였고, 웃는 영아에 대해서는 다른 비교 그룹보다 덜 행복하고, 덜 상호작용하고 싶어하고, 더 무관심한 것으로 보고했다. Kropp와 Haynes(1987)는 두 그룹의 어머니들에게 영아가 표현하는 고통, 놀람, 슬픔, 즐거움, 흥미, 두려움, 분노의 슬라이드를 보여줬으며, 그 결과 학대하는 엄마들은 비교 그룹보다 특정한 감정신호를 잘못 식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것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정보 처리 패턴과 아동학대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제안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보다도 그들의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보고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Reid, Kavanagh & Baldwin, 1987), 학대받는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에 의해 종종 더 힘든 아이로 인식되었고, 더 경멸적인 언어들로 묘사되었다(Lynch, 1976; Herrenkohl & Herrenkohl, 1979).

신경생리학 모델(Neurophysiological Models)

아동기 동안의 적대적인 가족 환경은 한 개인의 생물학적 스트레스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취약해진 생리적 적응 반응은 갈등의 순간에 감정과 행동, 관계 등을 고요하게 만들지 못한다(Arbel et al., 2016). 폭력적인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반복

적이고 만성적인 이상 사건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며(Repetti et al., 2002), 위협이나 외상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ANS)를 자극하여, 싸움, 도망, 복종, 얼어붙음과 같은 동물방어 생존반응을 수반하는 교감신경계(SNS) 고각성과 부교감신경계(PNS) 저각성 상태 결과를 초래한다(LeDoux, 2002; Ogden, Minton & Pain, 2006; Porges, 2003; Van der Kolk, 1996a, 1996b). 특히 교감신경계(SNS)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성화와 비효율적인 회복은 정서적, 육체적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상당한 연구 결과가 있고, 가족의 폭력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형성된 자율신경계(ANS)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지나치게 민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덜 결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율신경계(ANS)의 만성적인 활성화는 나중의 공격성을 수반할 수 있다고 설명되기도 한다(Arbel et al., 2016).

스트레스 관련 시스템이 위협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화되는 것은 적응적이거나,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부모를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들이 신체에 절차적 기억으로 학습되고(procedurally learned physical tendencies), 이는 부모가 학대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도 만성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실제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fear)이나 격분(rage)이 활성화되는 비적응적 행동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Ogden, 2009). 스트레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 과정이 반복적으로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반응 및 대처와 관련된 능력을 저해하고, 정서적 각성, 계획 및 의사 결정을 관리하는 신경학적 발달에 전반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 Bellis 2001; Glaser, 2000). 스트레스의 생리학적

변화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아동기 외상과 부적응 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주요 메카니즘으로도 설명된다(De Bellis, 2001).

행동유전학(Behavioural Genetics)

위에서 설명한 이론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폭력적인 양육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나, 최근 개발된 행동유전학 이론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폭력의 유전적 위험에 대해서 강조한다(Jaffee, 2012). 세대 간 폭력의 전이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모로부터 자손으로 유전된 특성이 전달되는 것으로, 폭력적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족의 유사성은 폭력의 환경적 영향보다는 공유된 유전학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Hines & Saudino, 2002). 폭력적인 부모는 자녀를 학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유전적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Koenen et al., 2005), 따라서 학대는 폭력의 원인이 아니라 폭력에 대한 유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Jaffee et al., 2007).

Roth와 Champagne(2012)는 DNA 메틸화(DNA methylation) 및 히스톤 변형과 같은 후성 유전적 메카니즘을 설명하면서, 방치, 학대, 만성 스트레스 및 외상 등이 실제로 개인을 반사회적 또는 폭력적 행동에 취약하게 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제안한다. 이는 유전적 변이라기보다는 후성 유전학을 수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민감성의 상속(inheritance)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유전적 소인은 일부 개인을 어린 시절 역경의 영향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유전자가 결정론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환경적 경험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후성 유전학적 연구는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뇌 발달과 공격적인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합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는 태내에 있는 동안 어머니의 흡연, 스트레스, 빈곤, 우울증 등이 후생유전학을 통해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출생 후에 부모가 폭력적인 양육, 빈곤, 낮은 교육, 우울증 등의 신체적,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아이의 뇌가 그들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 결국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전이는 수많은 상호 관련된 생물-심리-사회적 경로(bio-psycho-social path)를 통해 발생하며, 만성적인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물려받은 유전자와 환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태내 순간부터 시작하여 성장 초기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가정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Tremblay, Vitaro & Côté, 2018).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간 공격성 기원의 원인을 유전자(nature)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양육(nurture)에 의한 것인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Tremblay et al., 2018), 위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게 되는 기원에 있어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행동 문제의 세대 간 전이가 생물-심리-사회적 경로(bio-psycho-social path)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표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자주

만나 주는지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아동의 내적작동모델이나 조절의 양식이 생성되고, 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들과의 접촉은 DNA 메틸화를 통하여 후성 유전학적으로 변화하여 다음 세대로 이어지므로, 결국 폭력의 세대 간 전이는 아이가 부모 및 환경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안된 이론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중심으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학대적인 양육방식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모가 자녀와 만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녀 정서 상태에 대한 부모의 의식적·무의식적 반응이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위의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살필 수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정적이고 지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아이들은 때로 부모를 정말 화나게도 만들고, 밉살스럽게 행동할 때도 있다(Siegel & Bryson, 2012). 2017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관찰된 주요 특성은 반항·충동·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전체의 21.4%에 해당하는 7,152건, 다음으로는 정서·정신건강이 6,466건(19.3%), 특성 없음이 6,115건(18.3%), 발

달·신체건강이 1,863건(5.6%), 장애가 711건(2.1%), 기타가 306건(0.9%)이었다.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18.3%에 해당하였다. 이와 관련한 학대행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8,388건(22.2%),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고립 4,933건(13.1%),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2,721건(7.2%), 학대행위자의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는 경우는 1,676건(4.4%),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03건(2.9%)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요인과 아동의 요인을 결합하여 보면, 부모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 내 갈등이나 부모 자신의 성격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지만,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에 대해 이를 적절하게 다루면서 양육하는 방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Kim, 2016).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정서 반응보다는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있을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Tomkins, 1963), 긍정적 정서 상태에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정서조절을 필요로 한다(Dunn et al., 1991; Fabes et al., 2002). 이때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모의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반응들은 정서에 대한 이해를 저해시켜, 아동의 정서 각성 수준과 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Eisenberg et al., 1996), 아동의 정서조절을 손상시킨다(Hoffman, 1983). 부모가 자녀와 상호 작용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명확한 예는 정지얼굴실험(still-face procedure)에서 설명되고 있다(Tronick et al., 1978). 실험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부모와의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에게 유효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부정적 정서와 각성상태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감정에 수반되는 심장박동, 호르몬 수치, 신경계의 활성 변화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든다(Tronick, 1989).

부모에 의해 거부되거나 부정당한 감정들은 조절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감정이 되어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는데(Bowen, 1993), 이는 자녀가 부모의 행동 패턴뿐만 아니라 정서적 표현까지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된다(Jorgenson, 1985). 부모가 자신을 대우한 방식은 암묵적인 사회적 기억 속에 들어 있다가 자녀에게 같은 시스템으로 전수되면서 부모의 아동기 경험이 무의식적으로 대물림되고(Cozolino, 2014), 이러한 것들이 심리적 삶의 대부분의 순간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며, 이때 다양한 무의식적 정신 기제들은 각 개인의 환경 속에서 유리하게 살아가도록 자동적 자기 조절(automatic self-regulation)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Bargh & Chartrand, 1999). Main과 Goldwyn(1998)은 성인애착면접(AAI: Adult Attachment Interview)을 통하여 부모 자신의 애착유형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이는 자녀의 인지적·정서적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대인관계의 경험도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안정 애착의 엄마들은 자신의 아동기를 일관되게 기억하고, 부정적·외상적 경험을 잘 처리하여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용성(availability)이 높았고, 회피형 애착의 엄마들은 자신의 부모를 이상화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나, 일관적이지 않고 억압과 부인의 방어기제로 대응하며 이런 경향성이 자녀를 대할 때도 나타났다. 불안-양가형 애착의 엄마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기는 하나 뒤죽박죽이고 과

거와 현재가 뒤섞여 여전히 자신의 부모에게 집착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노하느라 자신의 자녀에게 집중하지 못했으며, 와해형 애착의 엄마들은 혼란스럽고 모순된 행동을 하는데 이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미해결된 외상과 슬픔을 암시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의 대인관계 경험은 생물학적 구조로도 전환된다(Cozolino, 2014). 초기 환경에서 주 양육자가 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감정과 스트레스의 표현에 부적절하게 혹은 거절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아동의 각성 조절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우뇌의 피질과 변연계-자율신경계 회로 형성과 관련 있다(Schore, 1994; Siegel, 1999; Cozolino, 2002). 안전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타인을 활용하며 애착 대상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된 아동은 같은 상황에 HPA(시상하부-뇌하수체-아드레날린)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 자율신경계가 부교감계 각성 쪽으로 편향되면 회피형이 되고, 이런 아동은 무기력하고, 심박률이 낮고, 활동 수준이 낮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울하고 위축되어 있고 동기가 부족하다. 자율신경계를 교감계가 지배하면 불안-양가형 애착 패턴이 되며, 이들은 신경질적이며, 의존적이고, 감정을 폭발하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떨어지고, 양육자는 아동에게 강하고 무질서한 감정을 많이 쏟아붓게 되며(Cozolino, 2014), 이런 아동은 충동 조절이 어렵고 적대적이며 버림받을까 봐 불안해한다(Schore, 1994).

또한 강렬한 감정은 변연계, 특히 그 속의 편도체라 불리는 부위를 활성화시킨다. 편도체는 우리에게 곧 닥칠 위험을 경고하고 시상

하부와 뇌간에 즉각 메시지를 보내 체내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몸 전체가 조화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계를 참여시킨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일련의 반응이 촉발되고 혈압, 심장박동 수, 산소흡입량을 늘리는 신경자극이 일어나고 신체는 싸움-도주반응을 준비하게 된다. 편도체는 시상에서 전달된 정보를 전두엽보다 더 빨리 처리하므로 유입된 정보가 생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미처 깨닫기도 전에 결정을 내린다. 보통 전두엽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생각과 느낌, 감정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정서적 뇌에 미리 설정되어 자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제어하고, 체계화하고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기능이 꼭 필요한데, 이 시스템이 망가지면 길들여진 동물처럼 행동한다. 위험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싸움-도주 반응 태세로 돌입한다.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편도체와 전두엽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학대 등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면 편도체와 내측 전두엽 피질의 균형이 급격히 깨지면서 감정과 충동조절이 훨씬 힘들어진다(van der Kolk, 1996). 부모의 정서조절 방식이나 이에 따른 반응 패턴은 자녀와의 대인관계 역동에 있어 절차적 기억으로 각인되고(Ogden et al., 2006), 아동 자신의 감정처리, 스트레스 조절, 자기조절과 관련이 되며(Schore, 2000), 이는 인생 전반에 걸쳐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을 무의식적으로 이끌어 가는 정서조절 전략을 형성하게 된다(Schore, 1994).

따라서 부모의 자녀 정서 상태에 대한 의식

적·무의식적 반응은 정서와 행동 패턴,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부모가 자녀의 모든 정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적절히 표현하도록 돕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녀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정서적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고,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킬 기회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Gottman et al., 1996). 또한 부모는 자녀의 부정 정서와 격한 행동을 만나는 모든 순간에 부모 자신의 정서조절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과 자녀의 생리적·정서적 상태를 인지하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의식적 느낌을 포함하여 무의식적 느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Shore, 1994).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각성 변동 범위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Ogden et al., 2006), 이는 자녀의 각성이 높아지면 그것을 진정시키기도 하고, 낮아지면 자극해서 조절하기도 하여 자녀가 최적의 상태에 있도록 하면서(Shore, 1994), 자녀의 조절 불능의 상태들을 끝까지 참아 주고 자녀 옆에 머무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Shore, 2003a).

세대 간 전이의 공통 매개로서의 정서내성범위

자녀가 버릇없이 굴고 말대꾸를 하거나, 격한 행동과 심지어 일탈, 문제행동 등을 할 때도 이런 순간들은 ‘인내해야’하는 순간이며, 동시에 자녀의 성공을 도와줄 기회이고, 양육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 된다(Siegel & Bryson, 2012). 아동의 정서조절 신경계가 제대로 발달하려면 강렬한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

되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는 부모의 정서조절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녀가 흥분하고 불안해 할 때, 부모가 함께 동요하지 않고 이러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하게 된다면 자녀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법을 습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훈육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감정든 효과적으로 경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인데, Siegel(1999)은 이를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의 개념으로 제안한다.

우리 각자는 정서내성범위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는 시스템의 기능이 방해받지 않으면서 다양한 강도의 정서적 각성을 처리할 수 있는데, 각성이 정서내성범위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생각이나 행동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높은 강도의 각성에서도 균형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낄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노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정서가 아주 약한 정도로 활성화만 되어도 제대로 기능하는데 상당히 방해를 받기도 한다(Siegel, 2012). 개인의 정서내성범위의 폭은 당시의 마음 상태, 특유의 정서 유인가, 그리고 그 정서를 불러일으킨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자율신경계의 활동 측면과도 연관된다(Siegel, 2012). 정서내성범위 밖으로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심박동수와 호흡이 증가하고 침습적인 이미지들과 감정, 몸의 감각으로 괴로워하는 등의 과각성 상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심박동수와 호흡이 줄고 ‘무감각하고’, ‘죽은 것 같은 느낌’, ‘공허감’을 느끼는 저각성 상태가 된다

(Ogden et al., 2006). 다른 자율신경계 조합도 가능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는 ‘머리가 폭발하고’, ‘몸은 긴장되는’ 감각이 만들어지며, 어떤 이들은 이런 상태를 ‘폭발적인 분노’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부모 자신의 정서내성범위의 폭이 좁아 과각성 또는 저각성 상태(hyper- or hypo-aroused states)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 예민하고, 예측불가능하고,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아동은 번덕스럽고 정서내성범위를 벗어나는 반응을 자주 보이며,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폭발은 많은 부모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정서내성범위가 이러한 체질적인 특성도 있지만 경험적인 학습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한다.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은 정서내성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만약 통제 불능한 정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진정시키려 돕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이는 정서내성범위를 좁히게 되고, 이때는 매우 혼란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느낌을 느끼게 되어 고통스러운 상태가 된다. 그러나 까다로운 아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보다 세련된 방법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넘어서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한 사람의 현재 마음 상태도 정서내성범위를 좁히거나 넓힐 수 있는데, 정서적으로 지쳐있거나, 신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상호작용으로 인해 놀라게 되면 정서내성범위가 좁혀질 수 있고, 이런 경우 다른 상황에서는 아주 가볍게 각성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의 마음상태에 따라 정서적으로 흥분하거나 눈에 띄게 당황할 수도 있게 된다. 각성된 상태의 강도가

정서내성범위를 벗어나면, 합리적인 사고에서부터 사회적 행동까지를 아우르는 여러 과정을 점령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행동은 더 이상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느낄 수 없고, 생각 또한 제어할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 이들은 행동 통제를 잃게 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행동과는 다른 방식으로, 심각하게는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Siegel, 2012).

특히 학대 및 방치와 같은 발달 기간 동안의 외상을 경험하여 부적응적 애착 성향을 지니게 된 부모들은 정서내성범위가 축소되어 있을 수 있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정정서 또는 격한 행동을 경험할 때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관련된다. 심지어 학대적인 양육의 경험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현재 자신의 마음 상태가 정서내성범위 밖에 있다면, 자녀와의 정서 경험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의 정서내성범위에 주목하고 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때 순간순간에도 부모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면서, 폭발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서적 어려움을 견디면서 자녀 곁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Ogden, 2009).

무엇이 부모의 정서내성범위(Window of affect tolerance)를 확장시키는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론이나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

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학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서는 부모의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이 학대적인 양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켜 자녀에 대해 학대적인 양육으로 가지 않도록 도움으로써, 그 자녀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고, 이는 자녀가 다시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신의 확장된 정서내성범위에서 그의 자녀를 학대적인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도록 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쉬운 점은 현재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교육내용이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적절한 기대를 개발하게 하거나, 자녀와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처벌 대신에 긍정적인 훈육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Barth, 2009).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녀의 행동, 또는 격한 행동, 부정적인 정서 표현의 모든 순간에 부모가 교육을 통해 배웠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암묵적인 기억의 형태로 체화되어있는 부모 자신의 훈육 방식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게 하고, 부모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자녀와 연결된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모들에게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을 제안한 Siegel(1999)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이 비의식적(nonconscious)이고, 이러한 비의식적 처리는 우리의 행동, 느

낌, 사고에 영향을 끼치고, 의식적인(conscious) 마음에까지 영향을 주는데, 의식적으로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행동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의식적 자각은 정서조절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자기 반영을 가능하게 하여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고 보다 더 적응적인 행동을 하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강렬한 정서 처리를 의식적인 부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의도적이고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능력들은 자동적인 것이 되어 상당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며, 이를 통하여 정서내성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을 통합하는 것과 긍정적인 정서 역량을 증가시키고, 몸의 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는 감정, 사고와 관련된 신체적 변화를 트래킹하고 신체감각과 감정경험, 인지경험을 언어로 명료화 시키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Ogden et al., 2006).

위에서 Ogden(2006)과 Siegel(1999)이 제안한 정서내성범위의 확장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첫째, 의식적 자각, 둘째, 긍정적인 정서적 역량을 증가시키고, 몸의 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기, 세 번째,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Ogden(2006)과 Siegel(1999)은 마음챙김의 효과에 대해 강조한다. 마음챙김은 신체 감각의 변화, 움직임, 감각 지각, 감정, 사고를 통해 현재

순간에서 펼쳐지는 경험을 바라보게 한다(Ogden, 2006). 힘든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몸의 감각과 움직임을 그냥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편안히 인식하고 그 자체를 ‘환영’하는 자세를 취하며(Siegel, 2002), 언어를 통하여 경험을 기술하고 그 경험에 이름을 붙인다(Kurtz, 1990; Ogden et al., 2006; Siegel, 2007). 이렇게 내적 경험을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술하게 되면 전전두엽이 관여하게 되어, 내적 경험을 행동화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인식하는 절차적 성향을 학습하게 되고(Davidson et al., 2003),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의식적 자각이 자기 반응을 가능하게 한다(Siegel, 1999)는 것과 관련하여 정신화하기(mentalizing)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신화하기는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인지 능력, 특히 정서조절과 관련되어 있다(Fonagy & Target, 2002). 신념, 소망, 감정, 사고 등과 관련된 개인의 정신 상태는 그것이 우리의 의식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간에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정신 상태에 관한 잘못된 신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이는 때로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정신화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면 대안적 가능성들을 숙고할 수 있게 되고, 숙고만 하더라도 우리는 신념들에 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신화하기는 절차적이며 대개는 의식적이지 않고, 직관적이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써 재빠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정신화는 언어와 마찬가지로 발달 소인이 선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일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획득된다.

양육자가 영아의 내적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반영(mirroring)해 주면, 영아는 자신의 경험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게 그들 자신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양육자의 빈약한 정신화 또는 학대적인 양육환경에서의 성장은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고 조율하고 표현하는 역량을 현저히 축소시키며(Fonagy & Target, 2002), 이는 다시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서 상태에 머물면서 그 상태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서들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Bateman & Fonagy, 2016).

두 번째, 긍정적인 정서 역량을 증가시키고,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부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긍정적 정서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가도 중요하며, 신체를 움직이는 놀이, 스포츠, 춤 등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 정서로 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이러한 신체활동들은 감정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이다(Panksepp, 2006). 특히 놀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 자기 무가치감, 경직된 형태의 방어 등을 다루는데 유용하고, 놀이체계와 연결됨으로써 유머, 쾌활함, 탄력성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행복감의 느낌을 키울 수 있어 힘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고(Ogden, 2006), 환경에 잘 적응하는 섬세하게 조율된 사회적 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Panksepp, 2006).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면 신체가 조율되는 느낌을 받고 유대감과 즐거움을 경험하듯이,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되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주는 본능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학대적인 양육의 경험은

자녀와의 주고받는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놀이나 연주 등을 통해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synchrony)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녀와 서로 연결되는 기회가 되고 부모 자신의 회복 과정이 되기도 한다(van der kolk, 1996). 또한 우리 몸에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데, 호흡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각성 체계를 직접 훈련시킬 수 있다(van der kolk, 1996). 평온하게 호흡하고 신체가 대체로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며, 심지어 고통스럽고 두려운 기억에 접근하는 순간에도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일부러 천천히, 깊고 고르게 호흡을 반복하면 몸의 부교감신경계가 정신의 각성 상태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van der kolk, 1996).

세 번째, 핵심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져 있던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모와 같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겪는 트라우마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자동차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것보다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가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 자녀들은 두렵고, 화나고, 좌절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공포를 혼자 처리하다 보면 절망, 중독, 만성적인 혼란,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타인에게 감정을 폭발적으로 분출해 버리기도 한다.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성인이 된 뒤에도 마음속에 오랫동안 얼어붙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부분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 회복되

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지금 현재 벌어진 일처럼 느끼면서 압도되지 않고 그 기억을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van der kolk, 1996).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실제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단절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와의 치료적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정서는 자기조절과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서적으로 의미있는 사건들의 경험은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자극하게 되고, 따라서 자신을 보듬어 주고 지지해 주는 치료사와의 관계는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Siegel, 1999, 2010a, 2010b). 정서내성범위의 확장을 위한 핵심감정의 경험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편안하게 드러내면서 고통스러운 메시지에 귀 기울여 주고, 오랜 세월 자신에게조차 비밀로 간직된 조각난 과거의 일을 탐색하도록 자신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치료사의 전문적 개입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물론 부모교육의 과정에 이를 담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학대를 경험한 부모들의 정서내성범위 확장을 위한 교육적 측면의 개입과 개인 치료적 접근을 모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논 의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76.9%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어도 성인의 50% 이상은 아동기(Kim, 2017; Ryu, 2017)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기에 폭력의 경험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 관점에서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학대의 경험들이 질차적 기억으로 체화되어 자녀에 대해 학대적인 양육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심지어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고도 자신의 양육방식이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보고를 보면(Park & Han, 2020), 무엇이 자녀에게 학대적인가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불분명해 보이며, 이는 아마도 부모로부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경험한 학대적인 양육방식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방식에 개입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부모가 왜 학대적인 양육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핵심 요인으로 무엇이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학습이론, 애착이론, 사회적 정보처리이론, 신경생리학모델, 행동유전학 이론들의 핵심적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위의 이론들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와 폭력 등의 외상경험은 후천적으로는 폭력을 학습하게 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의 조절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어 반사회적 또는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이는 다시 후성유전학적 변화로 이어지게 해 다음 세대로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 이 이론들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학대는 유전(nature)에 의한 것과 양육(nurture)에 의한 것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유전자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적 경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대 간 폭력의 전이를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며,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돌아보게 한다.

자녀가 자신감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힘겨운 일을 겪을 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매우 중요하다(van der kolk, 1996). 인생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 부모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자녀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 보호자가 압도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거나 자녀가 어려운 순간에 부모를 이용할 수 없다면, 아이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innette & Baylin, 2017). 부모가 자녀의 정서적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자녀의 뇌와 신체를 조절곤란(dysregulation)상태에서 조절(regulation)상태로 전환하고,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며, 그 과정에서 위로받는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면, 자녀의 뇌는 고통에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차분해지고 조절되는 것으로 바뀐다(Tottenham et al., 2012). 따라서 아동이 마음의 조절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부모가 필요하며, 부모가 자녀를 진정시킬 수 있게 되면, 안전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두뇌발달이 촉진되므로(Winnette & Baylin, 2017), 부모의 양육이 학대적인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켜 자녀와 접촉하는 매 순간에 자녀의 정서조절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을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에 적용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양육의 매 순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유용한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상황이 이해가 되고 배운 정보를 활용하여 적절한 양육 행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순간들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고,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종종 어렵기도 하며, 일부 아이들은 특히 이해하고 달래기가 어려울 수 있어 적절히 반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아동기에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들의 이러한 행동들을 견디고 통합할 수 있는 정서내성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아동의 신호를 정서내성범위 안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자율적 각성이 일어나서 공격-도망-얼어붙음(fight-flight-freeze)의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는 곧 아동에게 폭력적인 양육방식으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기도 하지만(Suh, 2001; Jo, 2010; Kim, 2018; Kim, 2018; Jo, 2019; Park, 2020), 부모교육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의 주 내용 조차도 자녀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훈련하는 요소가 많았고, 주로 인지 및 행동 영역에서의 효과들을 검증하고 있다(Park, 2018).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양육과정에서 폭력의 경험은 개인의 정서, 행동,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반응들은 의식적·무의식적 양육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지나 행동차원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전에 감정을 견딜 수 있고 경험이 통합될 수 있는 상태인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넓은 정서내성범위를 가

진 사람들은 더 심한 각성을 견뎌내고, 복잡하고 자극적인 정보를 통합하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적절한 감정과 자기감을 느낄 수 있다. 좁은 정서내성범위를 가진 사람들은 각성의 변동을 다루기 힘들고, 그 변동을 조절되지 않는 각성상태로 경험한다. 최적의 각성 상태에서는 대뇌피질의 기능이 유지되는데, 이것은 인지적·정서적·감각운동적 차원에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Ogden, P. et al., 2006).

따라서 부모 자신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부모교육에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고, 이에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감정 및 신체에서 일어나는 내적 경험을 비판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도록 하는 마음챙김과 정신화, 둘째, 긍정적인 정서적 역량의 증가와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기 위해 호흡하고 노래하고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각성 체계를 직접 훈련시키는 것, 셋째, 핵심감정을 표현하고 해리되었거나 숨겨진 감정을 통합하기 위해 어린 시절 부모로 부터의 학대 경험들이 지금 현재 벌어진 일처럼 느끼면서 제압되지 않고 그 기억을 잘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상담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의 연구와 부모교육 또는 양육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요인별로 효과성이 검증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세대 간 폭력의 전이 예방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의식적 자각과 관련하여 제안한 마음챙김과 아동기 학대경험과의 관련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Whitaker 등(2014)은 2,200여명의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아동기 외상과 성인기 건강의 관계를 연구하고 마음챙김 수준이 상위 25%내에 속하는 사람들은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사람들에 비해 건강문제를 가질 위험률이 50%이상 더 낮았고 마음챙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아동기 학대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예측했지만 마음챙김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English, 2012). 국내연구로는 마음챙김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동과의 갈등과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며(Gu & Hong, 2019),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 인한 신경성 폭식증 증상에서 마음챙김이 완충적 조절효과가 있었고(Lee, 2017), 따라서 마음챙김은 아동기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정신화 정도는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포함한 열악한 양육환경에서의 성장은 부모의 비정신화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로 인하여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방임과 학대, 무관심, 대화와 표현이 없고,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특성으로 나타난다(Lee & Lee, 2016). 게다가 아동기 정서적 외상을 경험한 성인은 정신화 수준에 따라 성인기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며(이호섭, 2020), 정신화 능력이 낮은 경우에 아동기 학대 경험과 관련된 경우 정신병리로 이어지기도 한다(Fonagy et al., 1996; Shim, 2010; Kim, 2018). 아동기의 외상 경험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 대한 성찰과 정신화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Kim, 2014).

둘째, 아동기 학대와 같은 강렬한 외상 경험의 기억은 일반적인 이야기 형태와는 달리 감각운동체계에 입력이 되므로, 외상 사건의 노출로 인한 불안과 각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완훈련이 필수적이다(van der Kolk, 1996). 호흡 등의 이완훈련은 외상 경험으로 인한 신체 생리적인 변화를 되돌리고 학대 외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는 경험을 견디면서 불안을 완화시키도록 한다(DeBellis et al., 1999).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집중하고 호흡이 빠르지는 느린지 스스로 느껴 보면서 몇가지 자세를 취하고 호흡을 세어 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Emerson & Hopper, 2011), 호흡법이 바뀌면 분노, 우울증, 불안과 같은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Philippot et al., 2002; Sovik, 1999). 또한 긴장되어 있는 신체감각을 이완시키기 위해 놀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만성적인 학대와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이들은 즐거움을 경험한 적이 거의 없거나 그럴만한 여유가 없어 이를 느끼는 능력이 상당히 파괴되어 있고, 따라서 즐거움을 느끼는 역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이 상당히 커지고(Migdow, 2003), 트라우마와 관련된 증상이 완화될 수 있다(Resnick, 1998). 특히 쌍을 이뤄서 하는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Schore, 2003a), 함께 놀면 신체가 서로 조율되는 느낌을 받고 유대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van der Kolk, 1996). 어머니가 자녀와의 놀이에 참여하는 것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데(Kim, 2010; Jeon, 2016; Choi, 2017), 이는 놀이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

고, 상대방에 대한 조망,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타인에게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Patterson et al., 1990).

셋째, 아동기의 폭력적인 양육의 경험은 그 누구와 있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는 것은 세상과 다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토대가 된다(van der Kolk, 1996). 세상과 안전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있어서 상담사의 역할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사의 대인관계기술(예; 공감, 따뜻함)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기술도 필요하지만, 상담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관계(therapeutic relationship)가 치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Norcross, 2011). 따라서 폭력적인 양육을 경험한 부모들을 만나는 상담사들이 안전애착 기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가해 부모들을 만나는 상담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없으며, 다만 폭력에 노출된 사회복지사들의 소진과 이차외상에 관한 내용(Yoon & Park, 2004; Kong, 2005; Park & Yoon, 2011)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폭력적인 양육을 경험한 이들과 함께 일하는 상담사들은 이러한 경험이 한 개인의 사고와 감정, 신체적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서내성범위에 대한 이해는 상담 장면에서 오는 이들의 상태와 반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침착하게 안정을 찾도록 돕고, 트라우마 기억과 과거 사건이 현재에 재현되는 것을 잠재우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제공하여(van der Kolk, 1996), 이들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의 단절을 위해 부모들의 정서내성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마음챙김이나 정신화를 통해 의식적 자각을 돕는 것이 아동학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은 있으나, 그 외에 긍정적인 정서역량 증가나 몸의 절차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것과 핵심감정의 표현이나 숨겨진 감정의 통합을 위한 상담사와의 관계가 아동학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은 살펴볼 수 없었다. 국외 연구를 살펴보면,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외상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관련 문제를 가진 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몸의 절차적 성향의 변화와 관련 있는 요가 세션을 진행한 후에 PTSD의 증상과 부정적 긴장을 감소시키려는 활동들(예: 자해), 그리고 해리 및 우울 증상의 감소가 있었다(Rhodes, A. et al., 2016). 또한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1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감각운동치료(Sensorimotor psychotherapy)는 신체 인식(body awareness)과 해리, 진정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고(Langmuir, J.I. et al., 2010), PTSD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신체중심치료(body-focused therapy)인 SE(somatic experiencing)는 PTSD 증상 및 우울 증상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om, D. et al. 2017). 전통적인 심리 치료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모교육이 인지와 정서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에, 최근의 연구결과들이 아동학대를 포함한 외상을 경험한 사례들에 대해 신체 기반의 치료들을 접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이 가진 어려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신체 기반의 접근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PTSD의 치료에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과 감정 조절 능력의 매개 영향은 성공적인 치료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Karver, M. S. et al, 2006), 치료적 관계 중에서도 치료사의 정신화가 내담자의 사회적 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Fonagy, P., & Allison, E., 2014), 따라서 국내연구에서도 아동기 학대경험을 가진 부모들을 만나는 상담사들의 어떤 요소가 중요한 치료 요인이 되는지를 파악하려는 연구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아동학대로 인해 수많은 감정적 상처와 여러 기능 영역에 걸친 어려움 및 사회적 문제들로 이어지는 결과들을 이해하는데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Widom, 2000), 아동학대의 단절에 필요한 증거기반의 연구들은 실제로 매우 적다. 부모들에게 단순한 양육기술의 전달이 아니라 폭력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양육방식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설계와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매우 필요하다. 따라서 정서내성범위와 관련한 변인연구가 좀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부모의 학대적인 양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의식을 포함한 무의식적인 과정이며(Cozolino, 2006), 매 순간의 양육방식을 의식하기란 쉽지 않고, 그래서 절차적 기억으로 내재되어 있는 양육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많은 부모들이 양육방식의 변화를 위해 책도 읽고, 유익한 영상을 보기도 하며, 부모교육에도 참여하지만, 막상 자녀의 모든 순간에 학습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절차적 기억 또는 의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서조절과 행동 패턴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무의식적인 절차적 기억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서내성범위의 개념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bel, R., Rodriguez, A. J., & Margolin, G. (2016). Cortisol reactions during family conflict discussions: Influences of wives' and husbands' exposure to family-of-origin aggression. *Psychology of Violence*, 6(4), 519-528.
- Baek, S. J., Chung, I. J. (2020). The effect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umulative risk factors.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20(1), 235-253.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entice-Hall.
- Bargh, J. A., & Chartrand, T. L. (1999). The unbearable automaticity of being. *American Psychologist*, 54(7), 462-479.
<https://doi.org/10.1037/0003-066X.54.7.462>
- Barth, R. (2009). Preventing child abuse and neglect with parent training: Evidence and opportunities. *The Future of Children*, 19(2), 95-118. <http://www.jstor.org/stable/27795049>
- Bateman, A., & Fonagy, P. (2016). *Mentalization-based treatment for personality disorders: A practical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 Belsky, J. (1993). Etiology of child maltreatment; A developmental-ecologic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4, 413-434.
<https://doi.org/10.1037/0033-2909.114.3.413>
- Bowen, M. (1993).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Basic Books.
- Brom, D., Stokar, Y., Lawi, C., Nuriel Porat, V., Ziv, Y., Lerner, K., & Ross, G. (2017). Somatic experiencing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 randomized controlled outcome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0(3), 304-312. <https://doi.org/10.1002/jts.22189>
- Byun, M. Y. (2020). The effect of parental child maltreatment experience on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and victimization experienc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apaldi, D. M., Shortt, J. W., & Crosby, L. (2003). Physical and psychological aggression in at-risk young couples: Stability and change in young adult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9(1), 1-27.
<https://www.jstor.org/stable/23096192>
- Chae, J. Y. (2017).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mothers' parenting behavior by romantic attachment i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The Korea Attachment Longitudinal Stud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6(2), 85-100.
- Cho, E. J. (2016). The Effects of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Emotional Abuse of Infants on Mothers' Empathy Ability,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Socio-emotional Develop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Nam Seoul University.
- Choi, H. H.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S. (2015). A study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 and authoritative parenting belief: Focused on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Choi, Y. S. (2016). Effects of mother's attachment on children's attachm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 of mother's self-acceptance and congru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Myeongji University.
- Choi, Y. S. (2018). The effect of parent's play participation and children's playfulness on children'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zolino, L. (2002). *The neuroscience of psychotherapy: building and rebuilding the human brain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mpany.
- Cozolino, L. (2014). *The neuroscience of human relationships: Attachment and the developing social brain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 WW Norton & Company.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964-975.
<https://doi.org/10.2307/1130537>
- Curtis, G. C. (1963). Violence breeds violence—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4), 386-387. <https://doi.org/10.1176/ajp.120.4.386>
- Davidson, R. J., Kabat-Zinn, J., Schumacher, J., Rosenkranz, M., Muller, D., Santorelli, S. F., Urbanowski, F., Harrington, A., Bonus, K., Sheridan, J. F. (2003). Alterations in brain and immune function produced by mindfulness. *Psychosomatic Medicine*, 65(4), 564-570.
<https://doi:10.1097/01.PSY.0000077505.67574.E3>
- De Bellis, M. D. (2001). Developmental traumatology: The psychobiological development of maltreated children and its implications for research, treatment, and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3), 539-564.
<https://doi.org/10.1017/S0954579401003078>
- De Bellis, M. D., Baum, A. S., Birmaher, B., Keshavan, M. S., Eccard, C. H., Boring, A. M., Jenkins, F. J., & Ryan, N. D. (1999). Developmental traumatology part I: Biological stress systems. *Biological Psychiatry*, 45(10), 1259-1270.
[https://doi.org/10.1016/S0006-3223\(99\)00044-X](https://doi.org/10.1016/S0006-3223(99)00044-X)
- DeLozier, P. (1982). Attachment theory and child abuse.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95-117.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4988), 1678-1683.
<https://DOI:10.1126/science.2270481>
- Dunn, J., Brown, J.,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48.
<https://doi.org/10.1037/0012-1649.27.3.448>
- Egeland, B. (1993). A history of abuse is a major risk factor for abusing the next generation.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197-208.
- Egeland, B., Jacobvitz, D., & Sroufe, L. A. (1988). Breaking the cycle of abuse. *Child Development*, 1080-1088. <https://doi.org/10.2307/1130274>
- Egeland, B., Jacobvitz, D., Papatola, K., Gelles, R. J., & Lancaster, J. B. (1987).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of abuse. *Child Abuse and Neglect: Biosocial Dimensions*.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53-275.
- Emerson, D., and Hopper, E. (2011). *Overcoming Trauma Through Yoga: Reclaiming Your Body*. North Atlantic Books.
- English, L. (2012). Investigati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dult attachment, and mindfulness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symptoms and emotional proces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uelph.
- Fabes, R. A., Poulin, R. E., Eisenberg, N., & Madden-Derdich, D. A. (2002). The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 (CCNE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lations with children's emotional competence. *Marriage & Family Review*, 34, 285-310.

- https://doi.org/10.1300/J002v34n03_05
- Felitti, V. J., Fink, P. J., Fishkin, R. E., & Anda, R. F. (2007). Epidemiologic support of psychoanalytic concepts: Evidence from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of childhood trauma and violence. *Trauma und Gewalt*, 2, 18-32.
- Fonagy, P., & Target, M. (2002). Early intervention and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Psychoanalytic Inquiry*, 22(3), 307-335.
- <https://doi.org/10.1080/07351692209348990>
- Fonagy, P., Leigh, T., Steele, M., Steele, H., Kennedy, R., Mattoon, G., Target, M., & Gerber, A. (1996). The relation of attachment status, psychiatric classification, and response to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1), 22.
- <https://doi.org/10.1037/0022-006X.64.1.22>
- Fonagy, P., & Allison, E. (2014). The role of mentalizing and epistemic trust in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Psychotherapy*, 51(3), 372-380. <https://doi.org/10.1037/a0036505>
- Frodi, A. M., Lamb, M. E. (1980). Child abusers' responses to infant smiles and cries. *Child Development*, 51, 238-241.
- <https://doi.org/10.2307/1129612>
- Gilbert, R., Widom, C. S., Browne, K., Fergusson, D., Webb, E., & Janson, S. (2009). Burden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in high-income countries. *The Lancet*, 373(9657), 68-81.
- [https://doi.org/10.1016/S0140-6736\(08\)61706-7](https://doi.org/10.1016/S0140-6736(08)61706-7)
- Gim, H. Y., Suk, M. S. (2003). The effects of abusive experience in childhood on child maltrea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s and family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6), 71-97.
- Glaser, D. (2000).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 brain-a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1), 97-116.
- <https://doi.org/10.1111/1469-7610.0055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
- <https://doi.org/10.1037/0893-3200.10.3.243>
- Gu, K. H., Hong, Y. K.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 between the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child abuse.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5(4), 97-116.
- <https://doi.org/10.33770/JEBD.35.4.6>
- Herrenkohl, E. C., & Herrenkohl, R. C. (1979). A comparison of abused children and their nonabused sibling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2), 260-269.
- [https://doi.org/10.1016/S0002-7138\(09\)61041-4](https://doi.org/10.1016/S0002-7138(09)61041-4)
- Hines, D. A., & Saudino, K. J. (2002).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 behavioral genetic perspective. *Trauma, Violence, & Abuse*, 3(3), 210-225.
- <https://doi.org/10.1177/15248380020033004>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A Sociocultural*

- Perspective*, 236-274.
- Hughes, K., Lowey, H., Quigg, Z., & Bellis, M. A. (2016).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well-being: results from an English national household survey. *BMC Public Health*, 16(1), 222. <https://doi.org/10.1186/s12889-016-2906-3>
- Jaffee, S. R. (2012). The role of genotype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in maltreated children. *Trauma, Psychopathology, and Violence: Causes, Consequences, or Correlates*, 49-75. Oxford University Press.
- Jaffee, S. R., Caspi, A., Moffitt, T. E., Polo-Tomas, M., & Taylor, A. (2007). Individual, family, and neighborhood factors distinguish resilient from non-resilient maltreated children: A cumulative stressors model. *Child Abuse & Neglect*, 31(3), 231-253. <https://doi.org/10.1016/j.chiabu.2006.03.011>
- Jeon, M. K. (2016). A Study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playfulness of preschoolers in the relations between play participation of mothers and self-regulation of pre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Jo, G. E. (2019). The Effect of Behavioral Parent Training for Child Abus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 Jorgenson, D. E. (1985). Transmitting methods of conflict resolution from parents to children: A replication and comparison of blacks and whites, males and femal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13(2), 109-117. <https://doi.org/10.2224/sbp.1985.13.2.109>
- Jung, E. K. (2014). A study on relations among abuse and neglect by parents, peer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based on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and adolescents grou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Kang, M. A. (2018). The relation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childhood abuse and non-suicidal self-injury: the mediating effect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Kang, M. K. (2009). A qualitative study on the parents' desistance from child abusive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9), 29-78.
- Kang, S. G. (2018). The effects of domestic abuse experience on adolescents' aggressiveness: moderating role of self-resilience and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Karver, M. S., Handelsman, J. B., Fields, S., & Bickman, L. (2006). Meta-analysis of therapeutic relationship variables in youth and family therapy: The evidence for different relationship variables in the child and adolescent treatment outcome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1), 50-65. <https://doi.org/10.1016/j.cpr.2005.09.001>
- Kim Y. H. (2017). Associations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with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Child Abuse and Neglect*, 67, 338-348. <https://doi.org/10.1016/j.chiabu.2017.03.009>
- Kim, C. S. (2010). The relationship of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parents'

- participation of pla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Kyungwon University.
- Kim, E. H. (2018).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association with adult health, mentaliz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University.
- Kim, J. H. (2014). Attachment on parenting behavior: The role of mentalization and perceived spous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 Kim, J. H.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hild abuse experience and the school-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the suicide ideation of the adolescent-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Christian University.
- Kim, J. Y., Lee, B. H., Yoon, Y. W. (2011).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violence of physically disabled in the childhood and the act of family violence in the adulthood: Moderating effect of the law percep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201-225. UCI: G704-000387.2011.18.6.010
- Kim, J. Y., Lee, J. H., Chung, Y. K. (2007). The effect of spouse violence perpetrator's child abuse experience during childhood on abusing one's own children - Focusing on spouse rol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291-312. <https://doi.org/10.16999/kasws.2007..35.291>
- Kim, M. J., Park, M. I., Yeum, D. M. (2013).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child abuse perpetrators to stop abuse: Focusing on the par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5, 185-205. UCI: G704-SER000009000.2013.25..005
- Kim, J. Y. (2018). The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for The Posttraumatic Growth of Child Abuse Surviv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 Kim, M. C. (2016).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nt and need for research for providing countermeasures: Psychological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8(1), 61-79. <https://doi.org/10.36999/kjc.2016.28.1.61>
- Kim, S. H. (2018).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 Reflec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eoul Woman's University.
- Kim, S. W. (2019). Mediating effects of beliefs about Emotional Development on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emotion-related parent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Kim, Y. M. (2015).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s of child abuse of hig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 Koenen, K. C., Saxe, G., Purcell, S., Smoller, J. W., Bartholomew, D., Miller, A., Hall, E., Kaplow, J., Bosquet, M., Moulton, S. & Baldwin, C. (2005). Polymorphisms in FKBP5 are associated with peritraumatic dissociation in medically injured children. *Molecular Psychiatry*, 10, 1058-1059. <https://doi.org/10.1038/sj.mp.4001727>
- Kong, G. S.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 burnout of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Korea Child & Family Welfare Association*, 10(3), 83-103.
- Korean Medical Association (2006).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23-47.
- Kropp, J. P., & Haynes, O. M. (1987). Abusive and nonabusive mothers' ability to identify general and specific emotion signals of infants. *Child Development*, 58(1), 187-190. <https://doi.org/10.2307/1130300>
- Kurtz, R. (1990). *Body-centered psychotherapy: The Hakomi method: The integrated use of mindfulness, nonviolence, and the body*. LifeRhythm.
- Langhinrichsen-Rohling, J. (2005). Top 10 greatest "hits" important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 108-118. <https://doi.org/10.1177/0886260504268602>
- Langmuir, J. I., Kirsh, S. G., & Classen, C. C. (2012). A pilot study of body-oriented group psychotherapy: Adapting sensorimotor psychotherapy for the group treatment of trauma.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2), 214-220. <https://doi.org/10.1037/a0025588>
- Ledoux, S. F. (2002). Defining natural sciences. *Behaviorology Today*, 5(1), 34-36.
- Lee, H. J. (2017). The moder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maltreatment and bulimic symptom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7(3), 445-467.
- Lee, K. S., Lee, S. W. (2002). A study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hood maltreatment: a comparison of mothers of children with emotional disorder and mothers of normal children. *The Journal of Play Therapy*, 6(1), 115-125. UCI: G704-001383.2002.6.1.008
- Lee, S. L., Lee, M. H. (2016). The qualitative study of non-mentalization of parents and the personality development of their adult children: Focused on the experiences of middle-aged women. *Journal of Social Science*, 42(1), 147-175. <https://doi.org/10.15820/khjss.2016.42.1.007>
- Lynch, M. (1975). Ill-health and child abuse. *The Lancet*, 306(7929), 317-319. [https://doi.org/10.1016/S0140-6736\(75\)92747-6](https://doi.org/10.1016/S0140-6736(75)92747-6)
- Main, M., & Goldwyn, R. (1994). Adult attachment rating and classification systems. *A typology of human attachment organization assessed in discourse, drawings and interviews*.
- Margolin, G., & Gordis, E. B. (2000). The effects of family and community violence on childre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1), 445-479.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1.1.445>
- Migdow, J. (2003). The problem with pleasure. *Journal of trauma & dissociation*, 4(1), 5-25. https://doi.org/10.1300/J229v04n01_0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2018 *Statistical Yearbook*, 136-146.
- Noh, N. N., & Hong, C. H. (2017).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Complex PTSD.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1-19. UCI: G704-000281.2017.30.1.001

- Norcross, J. C., & Wampold, B. E. (2011). Evidence-based therapy relationships: Research conclusions and clinical practices. *Psychotherapy*, 48(1), 98-102.
<https://doi.org/10.1037/a0022161>
- Ogden, P., & Minton, K. (2000). Sensorimotor psychotherapy: One method for processing traumatic memory. *Traumatology*, 6(3), 149-173.
<https://doi.org/10.1177/153476560000600302>
- Ogden, P. (2009). Emotion, mindfulness, and movement. *The healing power of emotions, affective neuroscience, development, and clinical practice*. Norton.
- Ogden, P., Minton, K., & Pain, C. (2006). *Trauma and the body: A sensorimotor approach to psychotherapy*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mpany.
- Ogden, P., Pain, C., & Fisher, J. (2006). A sensorimotor approach to the treatment of trauma and dissociation.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9(1), 263-279.
<https://doi.org/10.1016/j.psc.2005.10.012>
- Oh, Y. H. (2012).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impact of child-abuse to the delinquency and peer reje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 Ok, J., Bang, H. J. (2012).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ternal attachment: Mediation effect of paternal exploratory sensitiv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45-65.
- Osofsky, J. D. (1999). The impact of violence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33-49.
<https://doi.org/10.2307/1602780>
- Panksepp, J. (2009). Brain emotional systems and qualities of mental life; From animal models of affect to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eutics. *The healing power of emotion: Affective neuroscience, development and clinical practice*, 1-26. Norton.
- Park, A. K. (2008). Study about the factors that effect of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f sexually abused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C. H.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 Reflec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 Park, D. H. (2018).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Child Aggression: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peer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ark, H. G. (2015). Relationships of maternal reflective functioning,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infants' attachment secur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Y. H. (2018).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on cognition, emotion and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Park, Y. J., Han, C. K. (2020). A case study on child abuse defended as discipline pract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1), 29-55.
- Park, Y. M., Yoon, H. M. (2011). Influences of role conflict, workload,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elf-efficacy on burnout of social

- workers working with trauma survivo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6), 289-322.
- Philippot, P., Chapelle, G., & Blairy, S. (2002). Respiratory feedback in the generation of emotion. *Cognition & Emotion*, 16(5), 605-627. <https://doi.org/10.1080/02699930143000392>
- Porges, S. W. (2003). Social engagement and attachment: a phylogenetic perspectiv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08(1), 31-47. <https://doi.org/10.1196/annals.1301.004>
- Reid, J. B., Kavanagh, K., & Baldwin, D. V. (1987). Abusive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problem behaviors: An example of parental bi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3), 457-466. <https://doi.org/10.1007/BF00916461>
- Repetti, R. L., Taylor, S. E., & Seeman, T. E. (2002). Risky families: family social environments and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offspring. *Psychological Bulletin*, 128(2), 330. <https://doi.org/10.1037/0033-2909.128.2.330>
- Resnick, S. (1998). *The pleasure zone: Why we resist good feelings and how to let go and be happy*. Conari Press.
- Rhodes, A., Spinazzola, J., & van der Kolk, B. (2016). Yoga for adult women with chronic PTSD: A long-term follow-up study.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2(3), 189-196. <https://doi.org/10.1089/acm.2014.0407>
- Roth, T. L., & Champagne, F. A. (2012). Epigenetic pathways and the consequences of adversity and trauma. *Trauma, Psychopathology, and Violence: Causes, Correlates, or Consequences?*, 23-48. Oxford University Press.
- Ryu, J. H. (2017). Understanding connections among abuse and violence in the life cour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Report No. 2017-49)*, 150-168.
- Schore, A. N. (1994). *Affect regulation and the origin of the self: The neurobiology of emotional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chore, A. N. (2000). Attachment and the regulation of the right brain.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1), 23-47. <https://doi.org/10.1080/146167300361309>
- Schore, A. N. (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repair of the self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Vol. 2). WW Norton & Company.
- Seigel, D. J. (2007). *The mindful brain*. Bantam.
- Shim, Y. S.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reflective functioning and psychopathology: In trauma and nightm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Siegel, D. J. (1999). *The developing mind: Towards a neurobiology of interpersonal experience*. The Guilford Press.
- Siegel, D. J. (2002). The developing mind and the resolution of trauma: Some ideas about information processing and an interpersonal neurobiology of psychotherapy. *EMDR as an integrative psychotherapy approach: Experts of diverse orientations explore the paradigm prism*, 85-122.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ress.
- Siegel, D. J. (2010a). *Mindsight: The new science of personal transformation*. Bantam.

- Siegel, D. J. (2010b). *The mindful therapist: A clinician's guide to mindfulness and neural integration (Norton Series on Interpersonal Neurobiology)*. WW Norton & Company.
- Siegel, D. J. (2012). *The developing mind: How relationships and the brain interact to shape who we are (2. utg.)*. Guilford Publications.
- Siegel, D. J., & Bryson, T. P. (2012). *The whole-brain child: 12 revolutionary strategies to nurture your child's developing mind*. Bantam.
- Simons, D. A., & Wurtele, S. K. (2010).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use of corporal punishment and their children's endorsement of spanking and hitting other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34(9), 639-646.
<https://doi.org/10.1016/j.chiabu.2010.01.012>
- Sovik, R. (2000). The science of breathing-the yogic view. *Progress in Brain Research*, 122, 491-505.
[https://doi.org/10.1016/S0079-6123\(08\)62159-7](https://doi.org/10.1016/S0079-6123(08)62159-7)
- Suh, S. J. (2001). Effect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ng Emotional Abuse in Clinical and Risk Grou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SunWoo, J. H. (2017). The effect of child maltreatment on atten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 The moderating effects of psycho-social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Tomkins, S. (1963). *Affect imagery consciousness: Volume II: The negative affect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Tottenham, N., Shapiro, M., Telzer, E. H., & Humphreys, K. L. (2012). Amygdala response to mother. *Developmental Science*, 15(3), 307-319.
<https://doi.org/10.1111/j.1467-7687.2011.01128.x>
- Tremblay, R. E., Vitaro, F., & Côté, S. M. (2018). Developmental origins of chronic physical aggression: a bio-psycho-social model for the next generation of preventive interven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9, 383-407.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010416-044030>
- Tronick, E., Als, H., Adamson, L., Wise, S., & Brazelton, T. B. (1978). The infant's response to entrapment between contradictory messages in face-to-face intera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7(1), 1-13.
[https://doi.org/10.1016/S0002-7138\(09\)62273-1](https://doi.org/10.1016/S0002-7138(09)62273-1)
- Tronick, E. Z. (1989). Emotions and emotional communication in infants. *American Psychologist*, 44(2), 112-119.
<https://doi.org/10.1037/0003-066X.44.2.112>
- van der Kolk, B. A. (1996). The body keeps score. Approaches to the psychob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214-241. Guilford Press.
- van der Kolk, B. A., & McFarlane, A. C. (Eds.). (1996a). *Traumatic stress: The effects of overwhelming experience on mind, body, and society*. Guilford Press.
- van der Kolk, B. A., Pelcovitz, D., Roth, S., Mandel, F., McFarlane, A., & Herman, J. L. (1996b). Dissociation, somatization, and affect dysregulation: The complexity of adaptation to

- trauma.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3(7), 83-93. <https://doi.org/10.1176/AJP.153.7.83>
- Vökl-Kernstock S, Huemer J, Jandl-Jager E, Abensberg-Traun M, Marecek S, Pellegrini E, Plattner B, Skala K. (2016). Experience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among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outpatients.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7(5), 691-695.
<https://doi.org/10.1007/s10578-015-0602-7>
- Whitaker, R. C., Dearth-Wesley, T., Gooze, R. A., Becker, B. D., Gallagher, K. C., & McEwen, B. S. (201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dispositional mindfulness, and adult health. *Preventive Medicine*, 67, 147-153.
<https://doi.org/10.1016/j.ypmed.2014.07.029>
- White, S. O., & Straus, M. A. (1981). The implications of family violence for rehabilitation strategies. *New directions in the rehabilitation of criminal offenders*, 255-288. National Academy Press
- Wi, B. R., Hang, G. B. (2020).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attitudes and subjective well-being for mothers and adolescent childr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7(2), 385-412.
<https://doi.org/10.21509/KJYS.2020.02.27.02.385>
- Widom, C. S. (2000). Motivation and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In *46th Annual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NE, US*.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Winnette, P., Baylin, J. (2017). *Working with traumatic memories to heal adults with unresolved childhood trauma: Neuroscience, Attachment Theory and Pesso Boyden system Psychomotor Psychotherapy*.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Won, J. H. (2004). Forms of mothers' attachment, ways of tackling conflict between spouses and forms of children's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Yi, H. S. (2020).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nd psychological accept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iza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hood: For adults with emotional trauma in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 Yoon, H. M & Park, B. K. (2004). Factors & associated with burnout of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3), 279-301. UCI: G704-000330.2004.56.3.005
- Yun, A. N. (2019).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f parents of original family on parenting attitude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reflection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issert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 1차원고접수 : 2021. 02. 06.
2차원고접수 : 2021. 07. 08.
최종게재결정 : 2021. 07. 13.

The Investigation of Mechanism to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Focus on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

Mi-Hee Koo

Young-Soon Le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why parents, who ar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violently against their childr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to find out the mechanisms of what factors affect the most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First, social learning theory, attachment theory,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neurophysiological models, and behavioural genetics were presented as theories that expla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its core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Second, parents' affect regulation of their children's emotions leads to abusive parenting, affecting their emotions, behavioral pattern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and how this process explains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arents' affect regulation strategy to prevent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to this end, we will try to explain the importance of the parent's affect regulation system within this range by applying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Seigel, 1999), which is a state in which any affect can be effectively experienced and controlled. Finally,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is, examined the factors effective in expanding the window of affect tolerance, and suggested contents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unseling and curriculum for parents who have experienced abusive parenting.

Key words : child abuse, Window of affect tolerance,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ffect regulation strategy, parenting